마른 꽃잎에서 피워낸 찬란한 생명의 꽃

◀'화이트' 시리즈

'DF' 시리즈▶

사진작가 구본창 개인전 '花'…7월 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첫 공개 'DF'·'화이트' 시리즈 등 41점 선 봬
세계문학상 수상작 '붉은 소파' 주인공 모델

구본창 사진작가

구본창(63·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 사진작가는 보도사진이 주를 이루던 한국 현대 사진계에 '예술사진'을 정착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구 작가는 한때 대기업에 일하기도 했지만 숨 막히는 일상에 회의를 느끼고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6년 동안 조형과 사진, 디자인을 공부하며 본인이 원하던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해 현재는 영화 포스터와 패션브랜드 광고 촬영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 사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47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근 소설 '붉은 소파'로 제12회 세계문학상을 받은 조영주 작가는 주인공 모델이 구 작가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붉은 소파'는 15년 전 연쇄살인 사건으로 딸을 잃고 방황하는 스타 사진작가가 살인 사건 현장을 찍으며 연쇄살인마와 대결한다는 이야기다.

'태초에', '백자', '숨', '탈'시리즈 등 구 작가가 지난 30여 년 동안 찍은 사진들은 매번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사물을 세심히 관찰하고 수집해 온 그는 본질을 표현함에 있어 빛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7월5일까지 열리는 사진전 '花'는 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전시다. 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첫 공개하는 'DF(Dry Flower)'시리즈를 비롯해 하얀 배경에 나무 가지를 담은 '화이트(White)'시리즈 등 41점을 선보인다.

'DF'시리즈는 '숨'시리즈를 발표했던 1990년대에 시들어 마른 꽃을 촬영한 작품이다. '숨'시리즈는 멈춘 시계, 박제 동물 등을 촬영하며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비해 'DF'시리즈는 죽음을 통해 생명에 대한 찬가를 이야기한다. 만발한 순간이 아닌 말라버린 꽃잎을 찍었지만 볼품없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아한 아름다움이 전해진다. 사물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시간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작가 시선이 느껴진다.

'화이트'시리즈는 2002년 미국 피바디엑세스 박물관에서 발표돼 호평 받은 작품이다. 멀리서 보면 선이 얽혀있는 추상화 같지만 가까이서 감상하면 가늘고 긴 가지들과 나무 눈이 달린 가지들을 볼 수 있다. 한겨울 죽은 듯 보이는 나무가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새하얀 화면 속에 놓인 나뭇가지들은 경건한 생명력을 전해주고 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간을 덧칠하다'…김혜숙 개인전

25일까지 자미갤러리…'검댕이' 시리즈 등 20여점

'꿈과 시간'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푸른빛 배경에 다소곳히 그려진 백자 그림. 달인 듯 항아리 인듯 어릴적 고향을 떠올리게 한다.

김혜숙 작가가 25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시간을 덧칠하다'을 주제로 10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꿈과 시간', '검댕이' 시리즈 등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그동안 검은색 바탕에 점과 선을 이용한 추상작업을 주로 해왔다. 작품 '검댕이'는 삶을 살며 쌓인 내면의 어두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최근작들을 살펴보면 고민들을 떨쳐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꿈과 시간'시리즈는 무수한 붓질 사이로 다소곳이 자리잡은 백자와 밥그릇이 보여주는 조형미가 인상적이다. 특히 밥그릇은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막상 본인은 부엌 한켠에서 밥을 먹던 어머니를 상징한다. 작품 속 청색, 노랑, 빨강 등 밝은 계열 바탕에 자리잡은 밥그릇은 텅 비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정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다.

김씨는 조선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전주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뉴욕 파운틴아트페어,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했으며 한국미협, 광주·전남여류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0-83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예협회 광주지회 전시회 22일까지 DS갤러리

이흥홍 작 '초록 나들이'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지회장 토정 이흥홍)이 22일까지 DS갤러리에서 '문화의 불꽃Ⅱ' 전시를 연다.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기념 '문화의 불꽃'전에 이어 이번 전시는 서예를 계기로 광주 문화가 발전되기는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흥홍 회장 등 회원 54명이 서예, 문인화 등 전통서화를 비롯해 현대적 색깔을 가미한 수묵작품을 선보인다.

이 회장은 '초록 나들이'작품을 출품했다. 먹과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번지며 독특한 조형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창혜 강영화 회원이 그린 '상송상청(霜松常靑)'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절개를 이야기한다. 이밖에 종산 김남기 회원은 작품 '원앙'에서 원앙 한쌍이 정겹게 노는 모습을 밝은 색채로 표현했다.

이 회장은 "그 어느때보다 이번 전시는 참신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붓을 잡고 있는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62-233-391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9월 1일까지 예매

온·오프라인 판매…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도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6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예매 판매를 시작한다. 또 행사기간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입장권은 9월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gwangjubiennale.org) 티켓정보 페이지와 NHN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네이버 예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매표소,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목포역, 나주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영업점,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과 홀리데이인 광주에서도 판매된다. 예매 입장권은 현장판매 입장권(어른 1만4000원·청소년 6000원·어린이 4000원) 보다 30~50% 저렴하다. 사전 예매하면 어른 1만1000원(20인 이상 단체일 경우 어른 9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25.

자원봉사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8일까지 모집한다. 분야 및 인원은 ▲행사장 운영 62명 ▲주차관리 18명 등 총 80명이다. 이외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도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주한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이메 일 (kyungmin.lew@gwangjubiennale.org)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8-4212. /김용희기자 kimyh@

명량 해역 수중 발굴조사 현장 일반 공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달 9·30일 참가자 모집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 발굴조사 현장을 7월 9일과 30일 일반에 공개한다.

명량대첩로 해역은 조류가 빠르게 흘러 배가 지나가기 힘든 험로이지만, 예로부터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오갔다. 1597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함 13척으로 일본 전함 130여 척을 무찌른 곳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수중 발굴조사에서 최고급 고려청자,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 등 유물 670여 점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수중 발굴 전용 선박인 '누리안호'에 승선해 명량대첩로 해역을 방문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발굴 현장을 살펴 볼 수 있다.

수중 발굴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화(061-270-2071) 또는 전자우편(rohgabba@korea.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75년 발견된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부터 전국 순회 전시회를 비롯해 3개년 계획으로 신안선 모형 제작에 들어가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